

## 공공서비스로서 신·구도심지의 공원만족도 차이

### -대전광역시를 대상으로

심 준 영 · 이 시 영\*

전북대학교 녹지조경과 · 배재대학교 조경디자인학과\*

## Differences of Park Satisfaction in New and Old Downtown as Public Service;

### Focused on the City of Daejeon

Shim, Joon Young · Lee, Shi Young\*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Chonbuk National University, Iksan, Korea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urban park and the green spaces within the public service framework. It was investigated by identifying the priority elements as defined by the residents and to figure out the differences of residents' satisfaction for the parks in new and old downtown. This study surveyed 455 residents from 80 dong (neighborhoods) of 5 Gu(districts) in Daejeon. In this study, satisfaction on the urban parks and the green spaces in the old downtown was compared with the new town area.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ose who lived in the new downtown areas showed higher satisfaction than those in the old downtown for the urban parks and the green spaces, as well as in all 8 other evaluation sections. Both new and old downtown residents scored high on the 'city landscape and the natural environment' and 'green spaces and facilities' items, but scored low on 'citizen's respect' and 'acceptance of resident opinions'. The old downtown residents highly valued on easy access to the parks, while the new downtown residents focused on various activities and programs, as well as resident participation, as the parks. The variables affected the resident's satisfaction on the urban parks in old downtown areas consisted of 'information', 'diversity', 'supply decision'. Among these variables, 'diversity' had the most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satisfaction level.

Key words: public service, park satisfaction, park usage, public policy

## I. 서론

공원과 녹지는 공공복리의 차원에서 시민의 휴양 공간 및 도시환경 유지에 기여하도록 설치되는 사회시설이며 공공부문에서 공급되는 공공재이다. 도시 공공시설이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로서 주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활동과 가사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공수요를 충족시켜주며 공공성을 띠고 유상·무상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을 전달하는 시설(서울특별시 1995)이라 할 때, 지방정부의 정책과 운영수준은 공원과 여가라는 좁은 관점을 벗어나 앞서의 휴먼서비스(human service)와 환경관리체계라는 폭넓은 맥락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공공서비스는 전통적으로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민들의 욕구와 요구를 반영하는 것은 비능률적이라고 간주해 왔던 행정문화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1991년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었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이루어진지 12년이 지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면서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통제와 규율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그 권한과 책임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고, 주민참여와 행정수요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주민들은 지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공급하는 정부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가 처해있는 환경은 지난 수년 동안 많이 변화하여, 지방자치시대 이후 지방정부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더욱 다양화되고 증가되고 있으며, 도시주민의 소득 및 의식수준의 향상 등 시민들의 경제 및 문화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시민들은 보다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최희운 등 2004). 지방정부는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해 가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정연택 1999).

2005년 도시공원법의 개정으로 도시녹지 기본계획이 법정 계획으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개별

공원에서 범위를 확장하여 도시 전체 공원·녹지가 계획될 것임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 상태에 대한 진단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겠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본 논문은 다음의 연구목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도시공원·녹지 등 환경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만족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공된 서비스의 객관적인 양적·질적 차이에 의해 도시공원·녹지 환경이 차이가 나며, 이에 따라 지역간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녹지를 도시공공서비스의 하나로 규정하고 공공서비스라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평가를 통한 효과적인 도시공원·녹지의 만족향상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도시공원·녹지를 공공서비스 적 관점에서 평가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개인의 정원이 인공화 된 도시에서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한정적, 배타적 폐쇄공간으로 특징지어지는데 반해, 일반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은 인공적인 도시환경 속에서 자연을 접하려는 도시민들의 요구가 담겨져 있는 공공공간으로 설정된다. 그리고 본래적인 공공성 때문에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조성·운영하는 경우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지정 및 조성, 운영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김대수 2001).

또 취업, 건강관리, 주택공급, 정신건강, 청소년, 복지 등과 함께 ‘레크리에이션 및 공원’의 관점에서 휴먼서비스(human service)로 다루어지기도 한다. 여가시간의 활용은 인간개발, 지역사회개발, 자원보전, 삶의 질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휴먼서비스 적 접근방법을 강조한다. 휴먼서비스로서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은 인간개발, 사회복지, 지역사회의 통합을 강조하며 서비스는 활동, 프로그램, 시설물보다도 인간경험의 관점에서 정의되어야 하며, 지역사회의 삶과 환경을 개선시키는 데에도 또한 관계하는 환경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 공동의 분야를 모색해야 할 것과,

주민을 위한 계획보다는 주민과 함께 계획할 것을 제시하였다(Gold 1980). 그럼에도 도시공원·녹지를 공공서비스로 보고 연구대상으로 삼은 연구는 많지 않다.

박명호(1994)는 전국 6대도시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를 중심으로 민간서비스, 공공서비스와 민간서비스의 성격을 공유하는 서비스 등 106개 항목에 대해 품질평가, 요금·가격 평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정부정책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이용경험 유무, 만족도, 관심도, 가격만족도가 질문되었다. 공원/녹지는 품질만족지수 124로 51개 공공서비스 중 15번째였으며, 고만족/저관심 서비스에 속하며, 저가격/고품질서비스 영역에 속하고 있다(박명호 1994). 그러나 서비스 분류 시 공원과 박물관을 하나로 분류한 것과, 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조사되지 않았다.

이현우(2002)는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서비스시설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대구시 택지개발 사업지구 다섯 곳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시설의 이용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를 연구하였다. 대상으로 한 공공서비스 시설은 공공의 청사, 교육시설, 체육·여가시설의 3가지 시설에 대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주거환경의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안전성(safety), 보건성(health), 편리성(convenience), 쾌적성(amenity)평가를 하였다. 결과 개인의 질적 수준에 관계되는 교육시설이나 여가시설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학력, 소득수준, 직업의 유무 등에 관계없이 공공서비스시설의 이용만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또 공공청사와 교육시설 등 지역의 중심시설 역할을 하는 시설의 경우, 접근성과 편리성에서 높은 만족을 보이고, 체육·여가시설 등 직접적인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쾌적성, 안전성 등 심리적 부분에서 높은 만족을 보이고 있었다(이현우 2002).

김인 등(1989)의 연구결과, 경찰서비스, 지역개발서비스, 보건위생서비스, 문화 및 체육서비스의 순서로 공공서비스 수요가 컸었다. 여기서 공원이 포함된 문화 및 체육서비스의 수요가 가장 낮게 나온 것에 대해 ‘문화 및 체육서비스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만족스럽게 생각하거나 불

만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서비스와 관련하여 볼 때 이와 같은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라고 하여 연구 결과보다 더 큰 수요가 있으며, 특히 이러한 서비스의 경우 상류층의 수요가 중류층이나 하류층보다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김인 등 1989)고 하였다. 선행 연구들은 공원을 문화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또는 공원의 시설적 측면만을 통해 평가하고 있어 공공서비스로서의 공원에 대한 접근에 한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처럼 도시공원·녹지가 개인이 생산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이고, 선거 공약으로 제시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공공서비스 적 측면에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도시공원에 대한 인식이 도시를 구성하는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이라기 보다는 쾌적한 도시의 공간구성을 위한 부수적인 도시계획 시설로 여겨져 왔다. 이러한 인식으로 인하여 실제 시민들의 이용과는 별도로 계획 관리되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공원의 질적 수준 향상이 미흡한 실정이다(김종규 등 2002).

그러나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시민의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며 생활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대는 녹지 공간의 양적인 확보와 질적인 향상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목과 시설물 유지관리만을 공원·녹지 관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행정, 재정관리, 조직관리, 이용서비스관리, 이벤트 및 프로그램관리, 주민참여 유도 등의 운영·이용관리를 고려한 전반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이규목·이준미 2004). 또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공급의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를 평가함은 주민이 원하는 도시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선정 및 분석

본 연구의 대상지인 대전광역시는 1990년대 초 정부 제3청사의 이전과 엑스포 개최와 함께

개발된 서구와 유성구의 신도심지역과, 대전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구, 대덕구, 동구의 구도심으로 양분할 수 있다. 신도심과 구도심은 생성과 개발 연혁의 차이도 있으며, 도시공원·녹지 환경 등의 차이가 있어 도시공원·녹지평가 및 만족의 차이를 비교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5개 구별 도시공원면적은 2004년 기준 중구가 15,938,000㎡로 가장 넓고, 다음으로 대덕구, 서구, 동구, 유성구 순서였다(Table 1). 그러나 전체 도시공원면적 중 도시자연공원면적을 제외하면, 도시공원 면적이 2/3 수준으로 낮아지며 대덕구의 경우 14%까지 낮아지는 결과를 보여 전체 도시공원 면적에서 도시자연공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서구, 유성구, 대덕구, 동구, 중구의 순서로 많이 근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서구와 유성구가 많았다.

도심권 녹지면적은 도시공원과 시설녹지면적, 일반녹지, 가로수 면적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5

개 구별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 도심권 녹지면적은 다음과 같다(Table 2). 서구 8,142,215㎡, 유성구 7,258,029㎡, 대덕구 3,637,770㎡, 동구 1,807,668㎡, 중구 1,480,918㎡이다. 1인당 녹지면적은 유성구(35.25㎡)가 가장 넓고, 서구(15.94㎡)와 대덕구(15.92㎡)가 유사하며 다음으로 동구(7.53㎡), 중구(5.54㎡)의 순서였다. 따라서 서구, 유성구, 대덕구 순으로 공원 면적률과 녹지 면적률이 높아 서구와 유성구의 도시공원·녹지의 양적 환경이 좋다고 판단된다.

1인당 도시공원면적이 가장 넓었던 중구가 1인당 녹지면적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이유는 시설녹지, 일반녹지 면적의 차이와 특히 가로수 면적에서 유성구나 서구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구와 유성구를 비교 분석하여 보면, 도시공원 전체 면적은 6,335,723㎡(서구)와 5,036,701㎡(유성구)로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가로수 면적 역시 1,190,000㎡(서구)와 1,155,000㎡(유성구)로 많은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서구의 인구(약 510,000)가 유성구(약 200,000)의 두 배가 넘고, 시설녹지(서구 293,912㎡, 유성구 551,473㎡, 차이 257,561㎡)와 일반녹지(서구 322,580, 유성구 514,855㎡, 차이 192,275㎡)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녹지면적은 유성구가 서구보다 넓고, 인구수도 1/2수준이어서 1인당 녹지면적도 유성구가 넓다. 따라서 객관적 서비스 공급량만을 기준으로 하면 유성구, 서구, 대덕구가 환경이 우수하며, 특히 유성구의 도시공원·녹지 환경이 우수하다 할 수 있다.

2003년 대전광역시에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다. 또 구별 1인당 지방세액을 살펴보면, 동구는 305,000원, 대덕구 438,000원, 유성구 787,000원, 서구 526,000원으로 구민 1인당 유성구민은 동구민의 2배가 넘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유성구가 동구보다 개인의 경제생활과 구 재정이 풍요로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녹지 환경을 기준으로 구도심지역인 중구, 동구, 대덕구를 하나의 지역으로 하고 신도심지역인 서구, 유성구를 다른 하나의 지역으로 하여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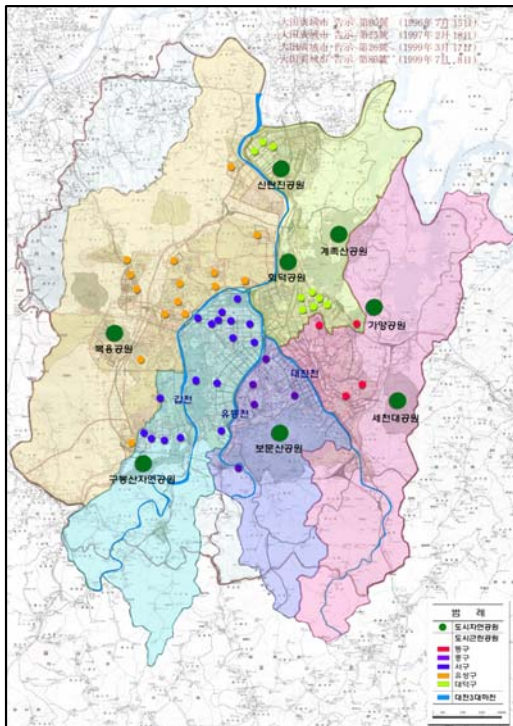


Fig. 1. Site Area(City of Daejeon)

Table 1. Occupancy ratio of urban park per 'Gu'

Classification	(Daejeon)Total	Dong Gu	Jung Gu	Seu Gu	Yousung	Daeduck
'Gu' area(km <sup>2</sup> )	539.64	136.79	61.96	95.25	177.20	68.42
Urban park area(thousand m <sup>2</sup> )	49,741	8,226	15,938	8,595	7,234	9,748
Area ratio of urban park in 'Gu' (%)	9.2	6	25.7	9	4	14.20
Urban park area-urban natural park area (thousand m <sup>2</sup> )	13,849	698	364	6,336	5,037	1,414
Urbanized area(km <sup>2</sup> )	226.1	41.7	34.2	57.3	66	26.8
Area ratio of urban park in urban (%)	6.1	1.7	1.1	11.0	7.6	5.3

Data: 2012 Plan of park and green space in Daejeon.

Table 2. Area of park & green space per person

Classification	Dong Gu	Jung Gu	Seu Gu	Yusung	Daeduck	
Green space area per person	7.53	5.54	15.94	35.25	15.92	
Population	239,480	266,960	510,315	205,787	228,208	
Area(m <sup>2</sup> )	1,807,668	1,480,918	8,142,215	7,258,029	3,637,770	
Urban park	subtotal	697,764	363,631	6,335,723	5,036,701	1,414,802
	neighborhood park	640,805	289,589	6,174,276	1,547,999	1,303,430
	children's park	56,958	74,041	161,447	221,191	111,371
	cemetery	-	-	-	3,226,510	-
	sports park	-	-	-	41,000	-
	area per person(m <sup>2</sup> )	2.91	1.36	12.41	24.47	6.19
	Green(facilities)	area(m <sup>2</sup> )	173,305	200,722	293,912	551,473
area per person(m <sup>2</sup> )	0.72	0.75	0.57	2.67	4.90	
Green(general)	area(m <sup>2</sup> )	166,598	211,565	322,580	514,855	349,702
	area per person(m <sup>2</sup> )	0.69	0.79	0.63	2.50	1.53
Street tree	plant	19,237	17,576	26,435	29,692	18,871
	area(m <sup>2</sup> )	770,000	705,000	1,190,000	1,155,000	755,000
	area per person(m <sup>2</sup> )	3.21	2.64	2.33	5.61	3.30

Data: 2012 Plan of park and green space in Daejeon.

##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조사도구로 사용하는 실증연구로서 설문지는 연구 과제를 구성하는 측정변수들로 조직화하였다.

본 연구는 2006년 8월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여, 대전광역시 19세 이상 전체 인구수 대비 19세 이상 동별 인구 비에 따라 500부를 배포하였다. 조사결과 회수된 설문 중 응답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것과 주요 설문이 누락된 설문지를

제외하여 455부(91.0%)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시공원·녹지 평가를 위해 공원·녹지접근성 4개 문항, 공원·녹지에 대한 정보이용과 정보습득의 용이성 3개 문항, 공원·녹지의 다양성 10개 문항, 공원·녹지설치 및 관리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3개 문항, 공원·녹지 서비스의 질 21개 문항, 공원·녹지의 공급(결정자) 10개 문항, 구와 시,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에 대해 각각 1문항으로 총 54개 항목에 대해 동의

Table 3. 46 Evaluation items

Classification	Variables
Access	location of park & green space in city distance of park & green space in city
	location of park & green space in gu distance of park & green space in gu
Information	information usage information learning
	information usage in park
Diversity	diversity of park & green space in gu divers event
	various activity program
	jogging track at park & green space
	bicycle track at park & green space
	play ground at park & green space
	rest place at park & green space children's area at park & green space
Public opinion	complaint response for complaint neighborhood participation
	convenient facility landscape facility resting facility leisure facility sports facility park improvement green quantity planting management park & green management
	natural environment in city provision of beautiful scenery maintenance of mountain trails decrease of environment pollution
Convenience	resident consideration-baby carriage resident consideration-handicap
	mayor-understanding for resident's needs city's official-understanding gu's leader-understanding gu's official-understanding mayor-expertise city's official-expertise gu's leader-expertise gu's official-expertise
Satisfaction	park satisfaction in public service

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중 신뢰도 검증과정에서 8개 변수가 제외되어 총 46개 항목이 결과에 사용되었다.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의 46개 평가항목을 신뢰도 검증과 요인분석을 통하여 다음의 8개 변수로 재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ver.12 for Windows)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및 지역 환경에 따라 도시공원·녹지평가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전광역시 구도심과 신도심을 비교하고 이를 위해 교차분석을 하였다.

또 도시공원·녹지 만족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구 공원·녹지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평가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여 구도심과 신도심 간 도시공원·녹지 만족모델을 비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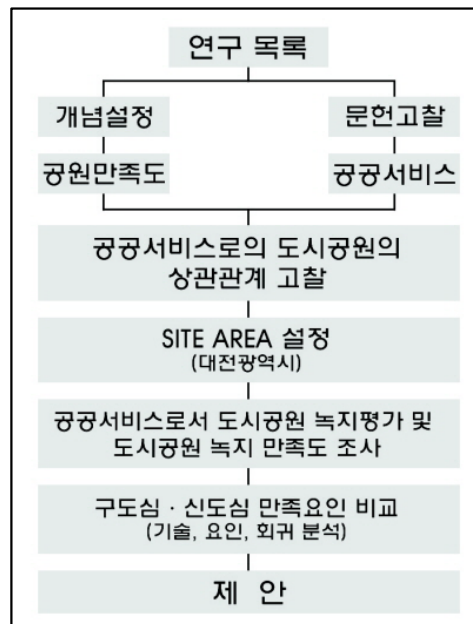


Fig. 2. Flow chart of Study

#### IV. 연구 결과 및 고찰

1.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평가 평가항목 8개 변수의 평균은 다음과 같다. ‘시

의 자연환경과 경관' 변수가 평균 3.48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다음으로는 '접근성'이 2.95, '다양성'이 2.91, '녹지와 시설'이 2.88의 순서였다. '주민의견반영'은 평균 2.56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고, '주민배려' 2.63, '공급결정자' 2.76의 순서로 낮게 평가되었다.

2. 신·구도심의 도시공원·녹지 평가 비교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평가의 구도심과 신도심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개 평가항목과 공원·녹지 만족도 모두에서 신도심 주민의 평가가 구도심 주민의 평가보다 높았다. 구도심 주민의 평가는 '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이 평균 3.42로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그 외에 '접근성', '정보이용', '녹지와 시설' 항목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주민의견반영', '주민배려', '공급결정자' 항목을 낮게 평가하였다. 구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구도심 내 도시공원·녹지는 접근성이 좋고, 녹지와 시설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우수하게 제공되고 있

Table 4. Evaluation of urban park & green space as public service : 8 variables

	Access	Information	Diversity	Public opinion	Green/Facility	Nature/Landscape	Convenience	Supply
M	2.95	2.80	2.91	2.56	2.88	3.48	2.63	2.76
Std.	0.84	0.83	0.79	0.86	0.60	0.70	0.80	0.81
N	511	480	439	413	436	484	477	310

Table 5. Evaluation of urban park & green space

Region		Access	Information	Diversity	Public opinion	Green/Facility	Nature/Landscape	Convenience	Supply
Old downtown	M	2.85	2.68	2.63	2.30	2.68	3.42	2.40	2.44
	Std.	0.87	0.89	0.74	0.83	0.55	0.73	0.77	0.79
	N	235	214	191	180	187	220	213	187
New downtown	M	2.99	2.82	3.12	2.60	2.97	3.51	2.64	2.89
	Std.	0.80	0.77	0.78	0.80	0.56	0.67	0.75	0.71
	N	210	202	185	172	187	202	200	172
Sum	M	2.92	2.75	2.88	2.45	2.88	3.46	2.52	2.65
	Std.	0.84	0.83	0.80	0.83	0.60	0.71	0.77	0.79
	N	445	416	376	352	374	422	413	359

Table 6. Satisfaction of urban park & green space

Region		'Gu' Satisfaction	'City' Satisfactio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Old downtown	M	2.59	2.71	2.83
	Std.	0.91	0.83	0.79
	N	244	243	244
New downtown	M	3.08	3.07	3.24
	Std.	0.98	0.92	0.87
	N	211	211	211
Sum	M	2.82	2.88	3.01
	Std.	0.97	0.89	0.86
	N	455	454	455

으며 주민에 대한 배려와 주민 의견반영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 공급결정자의 활동에 대해서도 불만족하게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신도심 집단의 평가는 ‘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다양성’, ‘녹지와 시설’ 항목을 높게 평가하였고 ‘주민의견반영’, ‘주민배려’, ‘정보이용’ 항목을 낮게 평가하였다. 신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신도심 내 녹지양이 충분하고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공원·녹지가 다른 항목에 비해 우수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도시공원·녹지에 대한 정보이용이 어렵고 주민에 대한 배려, 주민의견 반영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급결정자에 대해서는 구도심 주민보다 높게 평가하였다.

구 공원·녹지 만족도, 시 공원·녹지 만족도,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만족도 모두 구도심주민 보다 신도심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8개 평가항목과 공원·녹지만족도에 대한 두 지역 간의 평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 검정을 하였다. 그

결과 8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에서 유의수준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3가지 차원의 만족도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양성’, ‘주민의견 반영’, ‘시설’, ‘녹지와 시설’, ‘주민배려’, ‘공급결정자’의 6개 항목에서 구도심과 신도심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다양성’과 ‘녹지와 시설’은 객관적인 서비스 공급량에서도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월등히 많은 양이 공급된 것에 기인하여 평가도 신도심 주민이 더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주민의견반영’, ‘주민배려’, ‘공급결정자’ 항목은 앞의 세 항목의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되는 2차적인 항목일 수 있는바, 객관적 공급량에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한 신도심 주민들은 ‘주민의견반영’, ‘주민배려’, ‘공급결정자’에 대한 평가 또한 높게 평가 한 것으로 판단된다. 도시공원·녹지는 주민의 요구도가 높은 분야는 아니며, 주민의 관심이 높은 분야도 아니지만, 지역 간의 평가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현재 많은 부분이 각 구별로 관리되고 계획되고

Table 7. Evaluation of urban park & green space in new and old downtown (t-test)

Classification	t-test						
	t	df	p-value	mean gap	standard deviation	95% confidence interval	
						min.	max.
Access	-1.73	442.57	.09	-.14	.079	-.29	.02
Information	-1.66	411.37	.10	-.13	.081	-.29	.03
Diversity	-6.25	370.85	.00	-.49	.078	-.64	-.34
Public opinion	-3.42	349.97	.00	-.30	.087	-.47	-.13
Green/Facility	-4.98	371.69	.00	-.29	.06	-.40	-.17
Nature/Landscape	-1.26	419.51	.21	-.0870	.069	-.22	.05
Convenience	-3.22	410.64	.00	-.24	.075	-.39	-.09
Supply	-5.72	356.89	.00	-.45	.079	-.61	-.30
‘Gu’ satisfaction	-5.40	431.58	.00	-.48	.089	-.66	-.31
‘City’ satisfaction	-4.44	425.93	.00	-.37	0.08	-.53	-.21
‘Public Service’ satisfaction	-5.26	427.80	.00	-.41	.08	-.57	-.26



있으므로 이를 최대한 살려 각 지역의 필요를 찾아 적절한 공급을 계획하여야겠다. 특히, 주민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도시공원·녹지 활동과 상관이 있으므로 여건 변화에 맞춘 정책과 계획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신·구도심의 도시공원·녹지만족 모델

구도심과 신도심의 도시공원·녹지만족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하였다. ‘구의 도시공원·녹지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8개 평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구도심주민들의 도시공원·녹지만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9.07, p<0.001)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R<sup>2</sup>=0.389로 약 38%의 설명력을 나타내 설명력은 높지 않았다. 주민만족에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정보이용(β=-.31, p< 0.001)’, ‘다양성(β=.39, p<0.001)’으로 나타났다. 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β 값을 보면 다양성이 정보이용보다 영향력이 컸으며, 다양성은 주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정보이용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1이하에서 ‘공급결정자(β=.18, p<0.1)’는 도시공원·녹지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외 변수들은 도시공원·녹지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다. 구도심 주민들은 앞서 도시공원·녹지평가에서 ‘다양성’은 평균2.63으로 중간수준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하여 볼 때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나 여가활동을 할 만한 공원·녹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공원·녹지의 ‘다양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구

도심 내 공원·녹지 공급 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도시공원·녹지를 지향한다면 주민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9. Satisfaction factor : old downtown

Variables	B	Std. Error	Beta	t	Sig.
Constant	.99	.39		2.55	.01
Access	.09	.08	.09	1.12	.27
Information	-.28	.08	-.31	-3.38	.00
Diversity	.48	.12	.39	3.90	.00
Public opinion	.15	.10	.13	1.42	.16
Green/Facility	.27	.16	.19	1.68	.10
Nature/Landscape	-.15	.09	-.13	-1.65	.10
Convenience	-.05	.09	-.05	-.55	.58
Supply	.18	.10	.18	1.90	.06

신도심주민들의 도시공원·녹지만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분석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F=10.79, p<0.001) 전체분산의 설명력은 R<sup>2</sup>=0.412로 약 4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주민만족에 영향을 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는 ‘공급결정자(β=.29, p<0.001)’로 나타났으며, 주민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수준 0.1이하에서 ‘다양성(β=.21, p<0.1)’은 도시공원·녹지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결정자’가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신도심 주민들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초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는 ‘다양성’으로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원·녹지의 다양성이 적합하게 제공됨을 통해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Table 8. Analysis of variance : old downtown

Model	Square sum	df	Mean square	F	p-value
Linear regression	31.05	8	3.88	9.07	.00
Residual	48.80	114	.428		
Sum total	79.85	122			

Table 10. Analysis of variance : new downtown

Model	Square sum	df	Mean square	F	p-value
Linear regression	52.06	8	6.51	10.79	.00
Residual	74.21	123	.60		
Sum total	126.27	131			

Table 11. Satisfaction factor : new downtown

Variables	B	Std. Error	Beta	t	Sig.
Constant	-.37	.46		-.81	.42
Access	.11	.10	.09	1.08	.29
Information	.00	.10	.00	.04	.97
Diversity	.27	.14	.21	1.90	.06
Public opinion	.13	.10	.10	1.32	.19
Green/Facility	.28	.21	.16	1.32	.19
Nature/Landscape	.02	.12	.02	.18	.86
Convenience	-.01	.12	-.01	-.11	.91
Supply	.39	.13	.29	3.11	.00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의 만족 요인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두 지역 모두 ‘공급결정자’와 ‘다양성’이 예측요인으로 나타나 도시공원·녹지 환경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녹지의 다양성, 다양한 기회 제공의 중요성과 공공서비스로서 제공을 결정하는 공무원과 각 지자체 장들의 활동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다. 두 지역의 차이는 구도심에서 ‘정보이용’이 또한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다.

신도심은 구도심보다 ‘공급결정자’의 예측력이 더 높았다. 신도심은 구도심보다 상대적으로 우월한 환경을 갖추고 있으므로, 양적 공급보다는 ‘공급결정자’ 즉 도시공원·녹지 관련 지방정부 관계자들의 활동에 의해 만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도심은 그 외 변수들에서 신도심보다 예측력이 높았다. 특히 ‘다양성’은 다양한 종류의 공원 보다는 다양한 활동을 의미한다. 새로운 공원의 조성이나 이를 위한 부지를 마련하지 않아도 기존의 공원 녹지를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 절기에 맞춘 문화행사의 기획 등으로 다양한 활동의 장으로서 자리할 수 있으며, 이는 이용률 향상, 만족도 향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구도심의 녹지정책은 녹지공급과 푸른담장 가꾸기와 같은 시각적 환경, 생태환경으로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그보다는 참여 가능한 활동을 담은 공간으로써의 공원녹지 확충이 더 절실하다.

## V. 결론

본 연구는 도시공원·녹지를 도시공공서비스의 하나로 규정하고 공공서비스라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평가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역간에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시공원·녹지의 객관적인 양적 차이, 다시 말해 지역 간 제공되는 공공서비스의 차이에 따라 나타나는 구도심과 신도심 간 만족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공공서비스로서 도시공원·녹지 평가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8개 평가항목과 공원·녹지 만족도 모두에서 신도심 주민의 평가가 구도심 주민의 평가보다 높았다. 구도심과 신도심 주민 모두 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은 우수하고 녹지가 충분하고 시설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에 대한 배려가 적으며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였다. 구도심은 또 공원녹지의 거리와 위치가 이용에 편리하다고 평가하였으나, 신도심은 공원녹지에서 다양한 활동과 참여가 잘 이루어진다고 평가하였다.

구도심과 신도심의 도시공원·녹지만족 예측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하였다. ‘구의 도시공원·녹지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8개 평가 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입력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구도심 주민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정보이용’, ‘다양성’, ‘공급결정자’로 나타났다. 다양성의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싶으나 여가활동을 할 만한 공원·녹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공원·녹지의 ‘다양성’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 구도심 내 공원·녹지 공급 시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도시공원·녹지를 지향한다면 주민의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도심주민들의 도시공원·녹지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공급결정자’, ‘다양성’으로 나타났으며, ‘공급결정자’가 가장 영향력이 크게 나타나, 신도심 주민들의 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각 기초단체장과 관련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며, 다음으로는 ‘다양성’으로 다양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원·녹지의 다양성이 적합하게 제공됨을 통해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전의 연구들과 대별되는 결과로는 ‘정보’와 ‘공급결정자’이며, 특히 ‘정보’는 민간부문보다 공공부문에서 더 중요하게 간주되는데, 이것은 서비스의 제공자와 소비자에 의해 소유된 정보의 양에 있어서 정부부문이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었다. 정보는 “공무원”에 의해 지도되며,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해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어떤 것을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불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것은 공급결정자, 서비스 공급자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 인터넷과 지역 신문 등 다양한 정보제공의 경로가 있으며 공급 자체에 대한 혹은 공급자들의 일체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정보 제공을 통해 공공서비스로서 만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도시공원·녹지는 공공서비스 입에도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진실의 순간(Moment of Truth)’이라는 고객과의 접점이 없다는 점에서 시설로, 물리적인 면으로 만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집중되지만, 이벤트나 이용 프로그램, 인터넷이나 지방 신문을 통해 접점을 만들 수 있으며, 이것은 만족을 향상시키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대전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특성이 상이한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공원의 공공서비스 적 특성에 대한 심화된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대수(2001) 공원여가정보체계 구축을 통한 도시공원 이용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혜천대학 논문집 27, 505-519.
- 김종규·고원용·이원식·김홍규(2002) 시설기능에 따른 도시공원 분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논문집. 797-806.
- 김인·김학노·김성국(1989) 사회계층에 따른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서비스 배분에 있어서 관료제적 의사결정 규칙. 한국 행정학보 23(2), 737-755.
- 박명호(1994) 서비스의 시민만족도 조사. 서울: 한국개발연구소 국민경제교육연구소 연구보고서, 1-142.
- 서울특별시(1995) 서울시 공원·녹지 정책방향 연구. 서울특별시.
- 이규목·이준미(2004) 도시공원녹지관리의 자발적 공동체 내 사회적 자본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2), 271-284.
- 이현우(2002) 택지개발지구내 공공서비스시설의 이용만족도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석사논문.
- 정연택(1999) 지방정부 공공서비스 성과평가를 위한 기준연구. 3사교 논문집 49, 311-349.
- 최희윤·조영태·양동양(2004) 도시공공시설의 지역간 입지불균형에 따른 공간분석. 한국건축학회 논문집 20(6), 207-214.
- Gold SM(1980) Recreation Planning and Design. McGraw-Hill Book Company.